

김미선

경력

여, 1992 (32세)

이메일 miseon920@naver.com | 휴대폰 010-7546-8318 | 전화번호 010-7546-8318

주소 (49302)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경력

토브소프트

총 5년 8개월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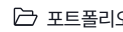
LOY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

대학교(2,3년) 졸업



희망연봉

4,000~5,000만원



포트폴리오

[sunny.pdf](#)

간략 소개

저의 기술은 Vue.js, TypeScript, React, JavaScript, 프론트엔드, ES6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자바스크립트 및 제이쿼리를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력은 웹 에이전시 및 자사 플랫폼 개발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에이전시에서는 기업용 홈페이지 및 쇼핑몰 홈페이지를 그누보드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으며 PHP를 활용하여 게시판 연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담당했고, 자사 플랫폼 회사의 경우 자사홈페이지의 프론트엔드 작업 및 컴포넌트 유지보수 및 개발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협업과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제 직무는 프론트엔드 개발로써 Vue.js와 React를 활용하여 다양한 웹사이트의 프론트엔드를 담당해 왔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내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작업하였고, 신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였습니다.

제 경력과 기술을 통해 웹개발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팀원들과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나의 스킬

Vue.js TypeScript React JavaScript 프론트엔드 ES6 Java MySQL ReactJS JSP RestAPI MariaDB

MyBatis Ajax SVN 백엔드/서버개발

경력 총 5년 8개월

2024.02 ~ 2024.06 **토브소프트** 개발팀 · 임시직/프리랜서 · 퍼블리셔
5개월

교육용 콘텐츠 개발

미래엔 엠티처 초등 교육용 콘텐츠 개발

아이스쿨 국어 교육용 콘텐츠 개발

자바스크립트 및 제이쿼리를 활용한 개발

2022.12 ~ 2024.02

1년 3개월

더블미디어 기술개발1팀 · 매니저 · 프론트엔드

vue를 활용한 자사홈페이지 프론트엔드 작업

Typescript 및 RESTful API 연동

Git을 이용하여 버전관리 및 코드 관리

컴포넌트 유지보수 및 개발

react를 활용한 자사홈페이지 프론트엔드 작업

컴포넌트 유지보수 및 개발

2020.10 ~ 2022.04

1년 7개월

코어플라넷 디자인팀 · 사원/팀장

퍼블리셔

연봉 3,420만원 | 근무지역 부산 | 퇴사사유 프론트엔드로 전향

2020.05 ~ 2020.09

5개월

업티브 개발팀 · 대리

퍼블리싱

연봉 3,000만원 | 근무지역 부산 | 퇴사사유 근무조건

2018.01 ~ 2020.02

2년 2개월

오감소프트 개발팀 · 주임

퍼블리싱,프론트엔드개발,유지보수

연봉 3,400만원 | 근무지역 서울 | 퇴사사유 이사

2016.02 ~ 2017.02

1년 1개월

도레도레에프앤비 파티쉐 · 메인 & 선임 파티쉐

케이크 아이싱

연봉 2,200만원 | 근무지역 서울 | 퇴사사유 업직종 전환

2015.01 ~ 2016.01

1년 1개월

신라명과 파티쉐 · 주임/파트장

성형,반죽,오븐

연봉 2,000만원 | 근무지역 서울 | 퇴사사유 계약만료

경력기술서

2012년 김영모 제과제빵 반죽파트 실습(표창장 수상)
2015년 케이크 아이싱 수료
2017년 Html5 기반 스마트 콘텐츠 제작과정 수료
201801~202002 오감소프트 개발팀 주임/계장
202005~202009 업티브 개발팀 대리
202010~202204 코어플라넷 퍼블리싱팀 팀장
202205~ 202211 리액트기반 프론트엔드과정 수료
202212~202402 더블미디어 기술개발1팀 매니저
202402~202406 토브소프트 개발팀 프리랜서

학력 대학교(2,3년) 졸업

2011.02 ~ 2013.02
졸업 **LOY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대학(2·3년제)** 식공간학부
지역 인천 | 주/야간 주간
논문/작품 [졸업작품]
아시아.식문화페스티벌 제2회
한식테이블스타일링

2008.02 ~ 2011.02
졸업 **장성여자고등학교** 이과계열

포트폴리오 및 기타문서

경력기술서 [경력증명서_김미선.pdf](#)

증명서 [김미선_수료증.pdf](#)

포트폴리오 [sunny.pdf](#)
작업기간 2022.10.10~2022.10.20 | 작업인원 1명
작업 툴 ppt
작품소개 포토폴리오를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PDF로 제작하였습니다.

기타 <https://msweb.tistory.com/>

기타  [김미선님 수료증.pdf](#)

증명서  [경력증명서_김미선님.jpg](#)

증명서  [경력증명서.pdf](#)

자기소개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어버린 UI/UX 퍼블리셔

“필요하면 직접 만들자”

파티쉐로 근무시 R&D(식음료 개발파트) 부서에서 일할 당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던 사이트를 관리하던 웹디자이너를 보면서 자연스레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웹을 보며 정보를 얻고 사진을 올리며 페이지를 넘겨갈 때 디자인과 코딩을 해야만 완성되는 퍼블리셔라는 직업을 알게되었고, 직업훈련을 받은 후 웹퍼블리셔로 실무 경험도 쌓았습니다.

웹퍼블리셔로 처음 입사한 [오감소프트]에서 프론트엔드라는 생소한 부서로 배정받았습니다.

퍼블리싱 과정을 수료할 당시 PHP, DB, Mysql 등을 배웠기 때문에 PHP 기반이었던 회사에 남들보다 적응하기 수월 하였고, 단순히 UX/UI 측면에서 퍼블리싱을 한다기보다는 그누보드를 활용하여 각종 게시판을 연동하는 프론트엔드 작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퍼블리셔 업무의 일부로 인지하였으나 시간이 지난 후, 데이터를 다루는 프론트엔드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년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퍼블리싱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데이터를 적용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까지 달려왔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개발된 언어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으며 이제는 제가 오랫동안 잘하고 싶었던 분야에 발을 담고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새로운 시도에 겁먹지 않으며 도전을 즐기는 개발자, 한 걸음 더 앞서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미선이 되겠습니다.

경력 및 주요 활동사항

“열정과 역지사지의 아이콘”

웹에이전시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만족이 1순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치과 홈페이지를 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퍼블리싱만 유지했는데, 고객사에서 원하는 부분이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락을 취해보니 의도와는 다르게 기능이 적용된 것 같으며 미팅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 담당자와의 첫 미팅을 준비하며 퍼블리셔 기준의 작업 가능 범위에 대해서만 미팅을 준비하였는데 실제 미팅을 한 이후, 고객의 요청 사항과 유저의 편리성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팅 후, 다방면으로 논의된 내용으로 디자이너와 백엔드 개발자와 협업하며 의뢰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냈고, 편리성과 기능성을 모두 충족시킨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입사동기와 포부

“UX & UI = 편리성”

웹퍼블리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편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디자인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떠한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유저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에이전시에서 근무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개발하였고, 사용 시 오류가 없는지, 부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은 없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했기에 반복적인 테스트 과정을 거쳤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전향 후에는 데이터를 가공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고, 업무가 어렵더라도 협업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해내어 마무리 잘하는 깔끔한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듯이 저는 매사에 즐겁게 일을 합니다.

입사 후에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어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